

표준 키패드에서 효율적인 한글 단어 작성을 위한 소프트 키 사용 방법

김현우, 김준호, 송은하, 정영식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khw0121, jjuN1204, ehsong, ysjeong}@wku.ac.kr

The Method of Soft Key Using for efficient Hanguk Word on Standard Keypad

Hyun-Woo Kim, Jun-Ho Kim, Eun-Ha Song, Young-Sik Jeong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Wonkwang University

요 약

현재 스마트폰의 급격한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터치스크린에서 한글을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터치스크린 한글 키패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습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오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글 키패드의 표준인 ‘천지인’의 장점인 사용자 습득율을 최대화하고, 단점인 자음의 멀티탭(반복누름)방식으로 인한 오타발생 빈도율을 스마트폰의 터치 슬라이드방식을 이용하여 최소화한 SC-Keyboard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IT산업 변천의 급성장에 따라 모바일에서 기존의 Feature Phone에서 Smart Phone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 수는 3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1,2,3]. 이로 인해 급증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와 비례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으면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고, 타인의 어플리케이션을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사용자 수에 비해 스마트폰 내의 한글 키패드는 이전 사용자를 위해서 Feature Phone의 키패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Feature Phone의 키패드의 단점인 고정적인 자소 배치와 멀티탭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스마트폰의 장점인 SoftKeyboard 방식으로 인하여, ‘딩글’[4], ‘모아키’[5], ‘밀기글’[6], ‘neoStyl05’[7] 등 많은 한글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키패드의 표준인 ‘천지인’에 비해 자소 배치에 따른 입력 횟수나 특수문자의 배치에 중점을 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입력타수가 적은 효율은 있으나, 자소 배치형태에 대해 인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초기 작동법에 대한 습득이 젊은 층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어르신 층에서는 많은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8].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글 키패드의 표준인 ‘천지인’의 사용자 습득율을 최대화하고, ‘천지인’의 단점인 중성자음과 다음 글자의 초성자음이 같은 버튼에 배치되어 있을 때의 모호성을 스마트폰의 터치 슬라이드 방식을 사용하여, 오타 발생 빈도율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버튼 입력 횟수를 줄여 한글 입력에 적합한 SC-Keyboard를 제안한다.

2. 천지인과 천지인 플러스

2.1 천지인

천지인은 한글 창제시 모음의 구성 원리를 변형하지 않은 체로 응용하여, 하늘(·), 땅(—), 사람(丨)이라는 3요소를 조합하여 따로 키배치에 대한 위치를 외우지 않아도 모든 모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키패드의 배치는 (그림 1)과 같다.

丨	1	·	2	—	3
ㄱ	4	ㄴ	5	ㄷ	6
ㅂ	7	ㅅ	8	ㅈ	9
123	한/영	○	□	0	

(그림 1) 천지인 키패드

하지만, “학교”, “국가”와 같은 단어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중성자음과 다음 글자의 초성 자음이 같은 버튼내에 있기 때문에 모호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경우 ‘학’을 입력한 후 Space(스페이스)

